

김은식의 예인산책 (글· 김은식, 사진· 최승훈 기자)

새겨내듯 꼭꼭 다져 걷는 일상의 힘과 아름다움

— 판화가 이철수

글을 쓴다는 것은, 이름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라고 했다. 그래서 시인이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어느 식물의 생식기관 다발이 꽃이 되었듯이, 사물은 글쟁이의 붓을 빌어 존재한다. 그러나 이름 붙이기는 창조의 과정인 동시에 파괴의 과정이다. 그것은 모양 없는 사물에 모양을 부여하는 일인 동시에, 존재를 유한성의 틀에 가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이란 아무리 가슴 떨며 적어 보아야 적지 않은 뭉치 오해거나, 아침이거나, 헛소리다. 따라서 무슨 대단한 시국선언문이 아니더라도 제 붓 날이 칼보다 날카롭게 누군가의 존재감에 난도질을 해 댈 수 있음을 인식하는 순간에 글쟁이는 새삼 고달프다.

이철수는 인터뷰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름 붙여지는 것이 싫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일은 글쟁이에게도 역시 피곤한 일이었다. 이름 없는 것에도가 이름을 붙이는 일만도 고역인데, 하물며 이름 붙여지기를 거부하는 이에 대한 글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임무'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야 어쨌건, 그동안 그에게 달라붙은 이름이 적은 것도 아니다. 명사가, 도인, 혹은 스님이 아닐까 하는 오해까지. 그리고 예술가. 예술가 중에서도 '한 때의 민중 예술가', 혹은 '문인화풍의 예술가', 그리고 '관조와 달관의 예술가'까지.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그에게 '성공한 귀농 사례'로서 인터뷰 좀 해 달라며 매달리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이철수는 그 어느 것도 아닌 동시에 그 모든 것이기도 하다. 스무 해 넘게 씨름하며 새겨 온 목판과 첩판이 대충 헤아려도 이천 개는 넘으며, 봄가을로는 작지도 않은 삼천 평 논밭을 일군다. 그런가 하면, 해 떨어지면 일체 손을 놓고 책읽기와 생각하기에 몰두하기도 한다. 때때로 지역과 농업, 환경이나 문화예술에 관한 싸움에서 지켜야 할 자리들을 지키는 것도 그의 일과 중 한 가지다. 그 어느 것도 굳이 전공일 것 없고, 그 어느 것도 부득이 견뎌 내는 고역이 아니다. 그 모두가 이철수의 존재고 삶이다. 그래서 그냥저냥 받아 들고 씹먹는 '판화가'라는 이름조차도 그는 그리 내키지 않는지도 모른다.

몇 해 전에는, 10년 넘게 깎아 두었던 목판 수 백 개를 내다 태워 버렸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한다. 우리 현대 미술사의 가볍지 않은 한 대목에 대해 저지른 끔찍한 만행이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냐 물었더니, 그저 쌓아둘 곳이 없었다고 했다. 혹은 아무 이유 없다고도 했고, 갑자기 조금 피곤한 눈빛을 흘리기도 했다. 기실 그가 태운 것은 어떤 이름이었는데도 모른다.

어쨌든 그도 요즘에는 나이를 먹어 가며 곁이 좀 삭았는지, 최근 인터뷰를 꽤 여러 번 했다. 특히 지난 연말에, 벌써 두 해째 거의 매일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띄워 올린 엽서 172장을 모아 책으로 출간한 뒤로는(《밥 한 그릇의 행복, 물 한 그릇의 기쁨》, 삼인) 두어 달 새 벌써 너댓 번이나 인터뷰에 응했다. 나를 앉혀 놓은 자리에서는 잘 씹먹으면 꽤나 논쟁거리가 될 이야기고, 혹 잘못 들으면 크게 오해를 살 이야기까지 우르르 쏟아 놓고 있었다. 어째서 생각이 바뀌었느냐고 물었더니, 이제는 글쟁이들이 뭐라 쓰든 그 또한 글쟁이 몫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군자(君子)는 가기이방(可欺以方)'이라던 맹자님 말마따나, 혹 잘못 붙여진 이름이라면 사물의 뜻이 아니라 이름 붙인 글쟁이의 뜻이다. 지당하다. 또 한 차원 '비움'이다.

가끔 한 해 한두 번쯤, 큰 맘 먹고 이철수의 판화 엽서 몇 쌈지를 사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한 장씩 돌리며 유난을 떨 때가 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제일 먼저 글씨를 써넣어 보낼 개중 못난 것들, 덜 아까운 것들을 고르느라 분주해진다. 제일 미운 아이에게 제일 미운 그림을, 그 다음 미운 아이에게 그 다음 미운 엽서를, 그리고 결국 제일 덜 미운 아이에게 제일 덜 미운 엽서를 할당하기까지 마치고 나면 머릿속에는 온통 아이와 엽서의 흠집들이 겨루고 지나간 썰렁한 먼지가 날린다. 그리고 나면, 결국 그 중 제일 예쁜 것

들은 항상 서랍 제일 깊숙한 곳에 모여 몇 해씩 잠을 자다가 어느 해 장마철 습기에 한 귀 통이를 노랗게 말아 올리곤 한다. 마저 비우지 못한 조막만한 미련이 나의 알팍한 선심마저 온통 껌테기로 만들어 버리고, 중국에는 그레가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미련마저 휴지 조각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다. '비움의 미학'을 소유하느라 집착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욕심과 상실의 못난 순환과정.



이철수의 판화는 깊은 한편, 가벼운 사색의 순간을 만들어 준다. '깊다'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제 마음 길 한 걸음을 걸어 들어가게 해 주기 때문이요, '가볍다' 것은 굳이 무엇과 대결하거나 투쟁하는 흥분 없이, 그저 착한 마음으로 고개 끄덕이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였을 게다. 지지난 해, '학벌과 특권의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던 조각배'가 가장 더러운 풍랑을 만나 표류하고 있을 때였다. 이철수는 '차 몰고 남녘 매화 보러 가는 일도 좋고, 친구들 만나 시절 이야기하며 술 한잔하는 것도 좋기야 하지만, 그것 다 접고, 동시대인으로 해야 할, 피해서 안 될 자리를 지켜 촛불 하나 밝혀 달라'는 엽서를 홈페이지에 띄웠다. 그러자 곧장 몇몇 사람은 '선생님 그림에서만큼은 정치 이야기를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정중히 답장을 보내왔더라. '착한' 예술가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만난 순간이었다. 그래, 이철수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분은 한 달만 발길을 쉬어 주십사' 전하고는, 한 달 내내 비열한 정치인들에게 욕지기를 날렸다고 했다.

그의 그림이 '가볍고 착한' 이유는, 이래저래 많이 팔아먹기 위한 장삿속이 아니다. 산책하듯 발 일구듯 내딛는 일상의 발걸음 따라 새겨지는 그 그림의 호흡 때문이다. 그는 그렇듯 다

지고 다져 던지는 거창한 한바탕 살풀이보다, 밥 먹고 출퇴근하고 잡담하며 일구는 삶의 진정성을 신봉한다.



그는 두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뽕뽕이'로 배치 받은 제천의 학교에서, 좀 짝수가 있는 놈과 없는 놈을 애초에 갈라 키우는 우열반 편성 따위가 영 못마땅하긴 했지만, 그래도 학교 밖에서 특별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성의 것, 보편의 것을 하루하루 제자리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에게 한 가지 물었다. 종종 그림에 추억담도 있을 법하건만, 선생님 그림 중에 몇 보지 못했다고. 그다지 좋은 추억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과거를 돌아볼 틈도 없을 만큼 일상이 그렇게 즐겁고 역동적이어서 인가하고. 그랬더니, 오랜만에 득의만만한 웃음으로 '내 옛날 가난했던 얘기 한 토막 해 줄까요?' 하더니 시키지도 않은 사실을 줄줄 늘어놓는다.

언젠가 이따금 쌀도 떨어져 좀 산다는 선배들 신세를 저야했던 젊은 시절, 앞뒤 못 가리고 나섰던 서울 길에 믿었던 선배가 마침 출타중이라, 그 집 파출부의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 여비를 채웠다는 이야기였다.

내가 물은 '추억'을 그는 '가난'으로 듣고 있었다. 아마도 그에게는 과거가 곧 가난이요, 가난은 곧 추억인 것 같았다. 어쨌거나 그런 얘기는 왜 한 번도 그리지 않았는가 물었더니, 또 사람 좋게 웃는다.

"가난이라는 게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사람을 다치게도 하죠. 특히 지금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 옛날에 이렇게 가난했는데 말이야' 하고 추억하는 것이 지금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치지 않고 약이 되게끔 이야기하는 그 내공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잘해서 그게 성공하면 다음에 그런 가난한 시절의 추억에 관한 이야기들만 한 번 엮어 볼 생각도 있어요."

자신의 가난으로 비추어 힘으로 삼되, 행여 남 다칠 일을 경계하는 마음 길. 누구보다 바빠 다져 온 마음공부, 그 비움 끝에 채워진 깨달음이 이런 것들이었을까?

그의 글씨체는 독특하다. 불규칙하게 굵고 가는 투박한 직선들이 뺏뺏하게 맞서며 이어진다. 아마도 조각칼 권 손에서 길러진 필력이 불펜마저 움직인 탓이리라. 나무판을 깎아 내는 조각칼의 느낌은 그렇게 이철수라는 사람을 조금씩 바꾸어 온 것인지도 모른다.

"판화라는 게 원래 여백을 다루는 작업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움'을 생각하시게 되는 모양입니다."

인터뷰 내내 탄 것 하듯 밀그림을 그려 대던 그가 멧쩍다는 듯 웃으며 잠깐 고개를 들었다. "허허, 글썬요, 그런 멋있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보지만, 글썬 그런 건 있지요. 이 목판에 다다 밀그림 따라 이렇게 새기다 보면 칼끝에 나무가 깎여 나가는 느낌이 꼭 산책하는 발자국 내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가 저 마을 앞까지 갔다 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걷는 것처럼, 밀그림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깎여 나가는 것이…."

그 사이 그가 낙서하듯 그려 대고 있던 밀그림의 주제는 '산책' 이었다. 나선 길에서 만난 나무와, 풀과, 돌과, 또 달과 별님. 새기듯 걷고, 걷는 듯 그리는, 그 야무진 일상의 풍경. 이름 붙여지지 않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듯 하지만 반대로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인, 일상의 힘과 소중함. 그가 걸듯이 새겨 낸 판화를, 보는 이들도 삶의 호흡에 '새겨 볼' 일이다. "사실 엽서를 쓰면서 생각한 것, 다들 엽서 한 장씩 쓰는 삶이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 아직 내 엽서 받고 엽서질 시작했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엽서 잘 보았다'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는 늦배운 홈페이지(www.mokpan.com)에 매일 엽서를 띄운다. 그는 그저 구경하는 것보다, 함께 걸으며 느낄 것이 더 많은 사람이다. 나서는 길에 이철수 선생이 판화 다이어리 한 권에 사인을 해서 내밀었다. 달마다, 날마다 마음공부 삼을 목격한 훈수가 따라붙은 목격한 다이어리. 사실은 그걸 받아 들고 와서는 아까워 제대로 연필조차 대지 못하고 있다. 글씨체

나 예쁘면 어울려 그림이 되라고 문질러 보련만. 이렇듯 초라한 미련 탓에 연말이면 또 버리지도 못하고 남기지도 못할 애물단지가 될, 예쁜 마음 한 조각이여.

출전/월간<우리교육>2003.3